

[북 스]

어린이 책꽂이

▲철새지킴이 노빈슨, 한강에 가다 =만화가 이우일의 일러스트가 보는 재미를 더하는 '신나는 노빈슨' 가다 시리즈, '철새타일즈'의 홍보대사가 된 노빈슨과 말숙이는 한강 하구에서 철새를 탐조하며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뜨인돌·8천500원>

▲교과서 속 인체 101가지=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생생한 과학 이야기를 엮었다. 학년별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체 기관을 삽화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다. 같은 제목의 인체·동물·식물·우주·지구 등 교실밖 신나는 수업 시리즈가 이어진다. <길벗스쿨·8천800원>

▲달걀을 품은 할아버지=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의 원작을 동화작가 웬디 앤더슨 홀퍼린이 어린이들을 위해 다시 썼다. 프랑스 시골 마을의 양친 할아버지 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따뜻한 감동을 준다. <북폴·8천800원>

▲나는 누구보다 씩씩해=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여자 스테터틀 입었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는 등 소심한 성격의 주인공 아홉은 아홉가 선물한 빨간 모자를 쓴 뒤 화 바뀐다. 자신없는 노래를 크게 부르고, 놀림 받은 친구를 구해주는가 하면 치과 치료까지 씩씩하게 받는 아홉의 새로운 일상이 흥미진진하다. <토마토하우스·9천원>

▲우리놀이가 우리문화=2005년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뽑힌 백희나 작가의 다종이 인형이 등장하는 책 밖으로 나올 것 처럼 생생하다. 1년 12달 동안 우리 선조들은 어떤 풍습과 놀이를 즐겼는지 역사스럽게 표현해 있다. <한솔수북·8천800원>

살인사건... 스캔들... 日帝下 조선 사생활 벗기다

경성기담 전봉관 지음

1934년 3월 17일자 조선중앙일보에는 윤신실이 폭로한 '교장과 학생의 키스 내기 화투' 기사가 실렸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건 스캔들의 장본인이 3·1 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박희도였기 때문이다. 이후 사건은 반전을 거듭하고 박희도와 윤신실, 그녀의 남편이자 박희도의 친구인 노원우의 '진실게임'은 계속된다. 1931년 8월 1일 부산 다카하시의 집에서 조선인 하녀 마리아가 변사체로 발견된다. 경찰은 다카하시 부인 등을 용의자로 지목하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사회 상황을 영뚱한 곳으로 끌고 간다. 살인 사건과 스캔들은 한 사회의 감추고 싶은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돋보이기자 사회·정치·문화사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황금광 시대'의 저자 전봉관(KAIST 인문사회과학부)교수가 펴낸 '경성기담(京城奇談)'은 1930년대 조선을 발각 뒤집어 놓은 10개의 살인 사건과 스캔들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극적이고 기이한 '이야기' 자체에 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듯 아무 생각 없이 책장을 넘겨도 좋고 행간을 읽으며 암울한 식민지 시대의 분위기를 느껴도 좋다'는 작가의 말처럼 이 책에 실린 사건들은 잘짜인 각본 같다. 풍부한 사료와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한 작가의 경쾌한 글쓰기 또한 책장을 빨리 넘기게 하는 힘이다. 책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건 '그 때 그 사건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도들의 재산과 여식(女處)들을 상납받기도 300여명을 살해한 교주 전용해의 '백백고 사건'은 오래양 사건 등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떠올리게 한다. 1926년 스토클홀름 대학 최초의 동양인 유학생이었던 최영숙의 '스캔들'은 여성의 사회참여, 혼혈아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다. 조선의 노동자와 여성을 위

부산 마리아 참살·백백고 사건 등 30년대 벌어진 '엽기적' 이야기

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제학 학위를 받고 귀국한 최영숙은 5개 국어에 능통한 재원이었지만 인텔리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조선 사회에서 '용나물 장사'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일할 자리를 달라고 했을 때 관심도 없던 사회는 스물 일곱에 세상을 떠난 그녀가 배속이 5개월된 인도 혼혈아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가혹한 잔대를 들이댄다. 또 경성 한복판에서 발견된 몸통 없는 아이의 시체를 둘러싼 경찰의 어이 없는 수사 방식을 읽으며 혀를 끌끌 차다가도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보여줬던 화성연체 살인 사건 수사팀의 우왕좌왕을 떠올리면 그냥 웃을 수만은 없다. 그밖에 책은 '이화학당 최고의 수재이자 마인'이었던 박인덕이 이혼을 요구한 사연, 조선 최고의 테너 안기영이 가정을 버리고 여제자와 결합한 사연, '채무왕'으로 불렸던 순종의 장인 윤택영의 스캔들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개인의 허물많은 사생활을 보여주는 건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가, 욕망 앞에 이념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살림·1만2천원> /김미리기자 mekim@kwangju.co.kr



저자 윤신실과 '키스 내기 화투' 사건에 휘말린 박희도(오른쪽)와 서양 무희 사진을 합성한 '제일선'에 실린 사진.

방송 진행 오프닝·클로징 멘트 엮어

첩첩상식 진중권 지음

'논객' 진중권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1년 여동안 '진중권의 SBS 전망대'를 진행하면서 남쫓던 오프닝·클로징 멘트가 한편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첩첩상식'은 '가해자'에서 '황우석'까지 161개 키워드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저자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중립적이어서 할 사회자의 임무와 주관적이어서 할 논객의 역할을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한다. 저자는 특히 자신의 멘트에 광분했던 황우석 지지자들의 '애국적 언어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상처와 내면의 후유증이 남았다고 한다. 책에 소개된 주제와 글들은 저자가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너무 많은 고민을 한 탓일까. 저자는 방송을 그만두면서 그동안 신문과 잡지 등에 기고하던 칼럼을 모두 접었고 "이제 더 이상 공격적인 성격의 글쓰기는 하지 못할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다. <새움·1만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유적지·호수·만년설... '성서의 나라' 분석서

이스라엘 평화가... 김중철 지음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유대인 가정집 지붕은 예외없이 빨간색이다. 이스라엘 공군기가 지상 공격을 할 때 야군과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서다. 평화스러워야 할 성서의 땅 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중동 전쟁의 주무대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평화가 사라져버린 5,000년 성서의 나라'는 방송 작가 김중철씨가 10년 전부터 스무번도 넘게 이스라엘을 찾은 뒤 써내려간 '이스라엘 분석서'다.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땅에 바다와 호수, 강과 만년설, 사막과 광야가 있는 나라. 가는 곳마다 성서나 역사책에서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적지가 있는 곳. 저자는 때론 방탄조끼를 입은 채 생명의 위협을 느끼가며 매력적인 땅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졌다. 팔레스타인과의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리수·1만5천9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도정일·최재천의 '대담'

도정일과 최재천은 신문이나 잡지의 칼럼을 통해 알게 된 분들인데, 나는 이들을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인문학자와 자연과학자로 생각한다. 이들의 글은 늘 챙겨 읽는 만큼의 즐거움을 준다. 도정일 칼럼의 매력은 해박한 사유의 저변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지적으로 승복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게 하는 데 있다. 문학 전공자로서 인문학의 한 칸에 서 있는 나는 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생각을 새롭게 정리하곤 한다. 최재천의 글은 명쾌해서 좋다. 그는 과학의 산물을 누리는데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과학적 사실의 이해와 과학적 사유의 길을 시원스럽게 제시해 준다. 과학자에게는 현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학적 전문 지식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일반 지식으로 전환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 나에게 그는 이상적인 생물학자이기도 하다. 이 두 사람의 대담집인 '대담'(휴머니스트 펴냄)에서 우리는 '생물학적 유전자와 문화적 유전자', '생명복제, 이제 인간만 남은 것인가', '인간 기원을 둘러싼 신화와 과학의 격돌', 'DNA는 영혼을 복제할 수 있는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소설인가 과학인가' 등 지금

인문학 사유와 과학적 지식 만남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대표적인 논쟁거리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와 과학 지식의 최전선을 만날 수 있다. 나는 때로 인문학자의 유연한 사고에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생물학자의 정연한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면서 즐겁게 책을 읽었다.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신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는 최재천의 공격에 신화는 과학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은유이며, 답이 아니라 질문이며, 생물학적 설명보다는 인간성에 대한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도정일의 답변은 통쾌했다.

복제 기술과 우생학이 결합하게 되는 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근친상간과 소설의 예를 든 도정일의 견해보다는, 자연계의 허다한 동식물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반박에 주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섹스를 하는 이유가 진화의 핵심인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인데 개량 인간이 된다는 것은 유전적으로 볼 때, 개인은 윤행해지는 데 비해 집단은 완전히 멸종해지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최재천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사과의 체계와 방식이 양극단일 수밖에 없는 인문학자와 생물학자의 대담이 공소해지지 않고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sus·공생 인간)라는 접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대담자의 전공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전방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한란 승부, 혹은 소통을 흥미롭게 관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미란 (소설가·전남대 교수)



<p>정우부동산 ☎ (대)167-0823, (민)011-607-2213 (전북동대읍교과리동풍곡로400번지)</p> <p>상업지역 130평 급매 ·원천동 40M 도로점 단층주택(복사지권) ·원천동 600평 용지 195천원(일반공인지역) 4억3천만원</p> <p>니주 은근골공단지 1030평 ·건물 500평 용지 195천원(일반공인지역) 4억3천만원</p> <p>화순 동원 서성리 임야 6000평 매도 ·8필지 권리 및 농림지역 매도가 4천9백만원</p> <p>진월동 APT 입주 상가부지 380평 ·10M도로점 8000㎡권 유래원천동 2000㎡권 매각 광주대학 입상지구 233평 매도 ·대90 건238(800세대 APT상가) 3층 일체 ·용지 3억 (3억) 및 스포츠센터(라크빌) 매도가 8억급매</p> <p>니주 남평 서산동(드림강원원지) ·관리지역 1250평 도로점 평당 200만원</p> <p>주말농장 및 묘지용 410평 ·화순읍 서성리(화곡리내부) 2000㎡ 용지 3억 (남평, 개곡) 평당 1200원</p> <p>진월동 2층상가 280매도 ·50M도로점(부·280, 2150) 용지 3억 원 대 7억 7천만 매도가 13억 3천만원</p> <p>남구 대촌 G/B 임야 20000평 ·도금동(철석부) 외곽계곡도로 평당 2만 3천원</p> <p>영암 심호용당공장 360평 매도 ·부지 360 건물 130평 잔기 1600㎡ 대형공장 건(현제4200) 375000평 매도가 195천원</p> <p>묘지용임야 6750평 매도 ·장성향 용정리(일곡부) G/B임야 차용전권 평당 1만1500원</p> <p>*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한국주스: www.kjst.com 을 클릭하세요</p>	<p>한국공인중개사 ☎ (대)882-7100, (민)010-4325-1323 (신창지구 신가중학교 옆)</p> <p>장성지역</p> <p>▶공장부지, 불류창고 ▶전문중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시는 평수대로 가능한 평수대로 가능 ※ 자연관계상 물건 올리지 못하겠음 이해바랍니다.</p> <p>공장매도 장성군 삼계면 4차선집 ●대지·약3000평 ●건물1-철골조 2층 437평 ●건물2-철골조 2층 248평 매매가·12억(절충가능)</p> <p>* 장성군 향릉,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구함.</p>	<p>등지공인중개사 ☎ 576-4080, (민) 010-5668-3456 (양산백지개발지구 빅티후문옆)</p> <p>등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매매 및 분양, 임차, 전세, 대지, 전매</p> <p>■양산백지 개발지구 ·백지 50필지 매각 4천: 평당 150~500만원 ·총상권 상가건물 임대 -1층 80평 당450만원(2층2개) -2층 80평 당500만원 -3층 80평 당800만원 -4층 80평 당2500만원 -5층 80평 당2000만원 양산백지 개발지구, 양산백지 개발지구</p> <p>■백지 전체를 교통광역지구 개발예정지 도로점 당400평 평당 220만원</p> <p>■장성군 전양면 1000㎡ (도로 교통광역) 임대: 154평 5천(전) 2700원/건 건: 920평 매도가: 19억 2천만원</p> <p>■광성군 오산면 통동리 면사무소 근처 도로점 2000㎡ 5000평 평당 5만 5천원(주말농장, 기숙사지) 적합</p> <p>■삼기면 동송지구 국민은행 근처 (문화지구 최고상권) 상가 18평 매도가: 3966천원(현제) 4000만 원 1800만 원 상당</p> <p>■합천군 수송리 동진지역 22000평: 평당 15만원</p> <p>■니주시 금천면 손곡리 도로점 자연부지 2000평: 평당 40만원</p> <p>■양산군 한림면 589㎡ BE인텔 하우스 매도가 398000원(9월 입주예정) 광주시 유일한 VIP용 호텔사이드</p> <p>■부곡동 동송지구 1000㎡ 3000㎡ 대지 130평 2층 380평 2층 및 빌딩 2층 포함 <합천> 부동 65000원 4000㎡ 원 용지 3966천원 매도가 4966천원(2층) 가 *현제상권 급매(상권) 개발</p>	<p>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 010-9455-2200 ☎ 674-1500 (광의동 드라이브 세트장 옆)</p> <p>비전있는 남구, 지금이 부자의 최적기입니다</p> <p>남구 이상동 임야 28000평 급매 ·마을길 도로있음, 대밭, 밭, 나무, 소나무(식재) 경지 평당 가: 16만원 주말농장 최고지역</p> <p>남구 이상동 700평 매매 ·도로점 현재담으로 사용중 평당 가: 17만원 투자적합</p> <p>남구 양동동 주거지역 매매 ·당지 800평 평당 35만원 도로점 투자유망지역 전원주택 실버타운 병원 별장부지 최고</p> <p>남구 이상동 주택 급매 ·대지: 130평 건물 90평 정원 텃밭 평당 75만원</p> <p>광주 남구 대지동 주택매매 ·대지: 150평 건물 70평 주택 30평 시내버스 노선지 매매가 1억 8천만원</p> <p>남구 양동동 임야 1500평 평당 2100원 평당 7만 원</p> <p>남구 양동동 주택 및 창고매매 ·대지 56평 건물 25평 당 1200원 총 176평 매매가: 1억 1천만원 시세비저 노선지</p>	<p>아름다운부동산 ☎ (대) 062-956-8845 ☎ 010-3162-4989</p> <p>상가건물 ·전대 우문 앞 25m도로점 대지 75평 건물 130평 (지하1층 지상3층) 보충금 393천원 월세 602만원 매매가 14억 3천만원</p> <p>·광산구 활곡동 부영아파트 9230㎡ 도로점 상업지역 대지 53평 건물 300평 보충금 1977천원 월세 230만원 매매가 6억 7천만원</p> <p>투자 및 임대용지 ·광산구 은남동 주정23차 아파트 앞 대지 8900평 보충금 1956천원 월세 530만원 매매가 평당 150만원</p> <p>모텔매매 ·삼부지구 객실 40개 보충금 8945천원 월세 1,100만원 매매가 21.956천만원</p> <p>병원부지 ·삼부지구 150평 200평 신창지구 120평 150평 하남2지구 24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p> <p>전원주택용지 ·광산구 지산동(보안) 소재지안근대지 240평 건물 20평 매매가 8250만원</p> <p>모 지 ·장성군 진평면 산정리 임야 5000평 매매가 평당 15만원</p> <p>신축건물 임대 ·광산구 신창동 신창초등학교와 진평고사이 5층 신축건물 층당 500평 (1층 식당 2~5층 학원겸용)</p>	<p>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3114-6103 (두림동 두림2지구대사거리 농협앞면 2층)</p> <p>건물</p> <p>●4억 호화주택 ·42300원 2900㎡ 용산동 유망지역 ●4억 3천 원용 매매 ·사동(200평 건물) 25,000원 8000㎡ ●7억 8천 원용 상가 매매 ·2000㎡ 2000㎡ 용지 8000㎡ ●용동동 10억 고시원 급매 ·2100㎡ 용지 2000㎡ 용지 8000㎡ ●19억 9천 원용 20x100m 코너 ·1000㎡ 용지 2000㎡ 용지 8000㎡ ●17억 5천 원용 12칸 빌딩부지 ·5000㎡ 용지 2000㎡ 용지 8000㎡ ●22억 상업지역 빌딩 ·1500㎡ 용지 2000㎡ 용지 8000㎡ ●49억 상업지역 빌딩 ·1176 2540㎡ 보충금 1977천원 월세 230만원 매매가 평당 150만원</p> <p>●85억 상업지역 빌딩 4670 21,660㎡ ●125억 빌딩 급매 4675평 216,000원 ●9억 8천 원 빌딩 ·1000㎡ 용지 2000㎡ 용지 8000㎡</p> <p>주요소 전문중개</p> <p>●시내 8억 주유소 급매 ·대지 200평 2500㎡ 보충금 144000원 포함 ●10억 주유소 ·원천동 2000㎡ 용지 8000㎡ ●11억 5천 원용 시외 주유소 ·1176 2540㎡ 보충금 1977천원 월세 230만원 ●13억 시외 주유소 급매 ·2000㎡ 용지 2000㎡ 용지 8000㎡ ●17억 시외 주유소 ·11,000㎡ 용지 2000㎡ 용지 8000㎡ 매매가 1.1000만원</p> <p>병원부지 전문중개</p> <p>●5500평 평당 650만원 ●3600평 평당 850만원 ●1400평 평당 900만원 ●2700평 평당 5000원 APT 7000세대 ●9억 원용 7000 2160 2000㎡ 용지 8000㎡</p> <p>7억 시외운전학원 급매 ·광안동 3000평 현재 도청합치점 ·문정동 용동 용지 3955㎡ 용지 8000㎡ 용지 3955㎡ 용지 8000㎡</p> <p>창고 급매</p> <p>·A3000㎡ 건물 10억 원 빌딩 급매 ·대90 건280 보충금 194,000 원 7000원 ·공시지가 이하 급매용</p> <p>·오사동 140평 ·오사동 180평 ·부암동 120평 ·금림동 130평 공시지가 13억 매매가 7억</p>	<p>동림2지구공인중개사 ☎ (대)522-9422, ☎ 011-643-3210 (동림2지구 앞 하남로 대로변)</p> <p>동림2지구 임대</p> <p>병·의원</p> <p>학원, 상가</p> <p>최고상권 최적조건 3면도로코너</p> <p>2층~5층 70평, 135평</p> <p>속 입점확정 1층 광주은행</p>	<p>대지공인중개사 (☎) 011-625-3965</p> <p>구합니다</p> <p>·사회복지시설부지: 2만평 이상(가격은 시세대로) ·급매물 부동산 구합니다. (신속처리)</p> <p>팝니다</p> <p>●월동 400평×330만(분할가능) ●이전만 해갈 물건 ·신안동 제일오리셀 22평 평당 3,000만원, 보충금 2,000만원 월임 1만원</p> <p>●금리로 공시지가 15억 ·매매가 8억 대지 140평</p> <p>●중동 35m 대로변 주거지역 ·코너 대지 180평 매매가 평당 3100원 ·대지 280평 건물 300평 전면 22m 대로점 매매가 10억 5천만원</p> <p>●신안동 상업지역 대지 102평 ·조식전면 64평 현제실 개 2억 5천만 원 용 1억, 보 2500만원 150만 유망</p> <p>●분동 4차선 대로점 900평 ·2층건물 있음, 생산부지, 매매가 평당 130만원</p> <p>●삼각동 31사단 정문앞 4차선 대로변 ·대지 88평 매매가 평당 2800만원</p> <p>●도원동 생산부지 포장도로점 ·907평 매평당 78만원</p> <p>●학동 대지 120평 ·여관건물 150평 포함 매평당 330만원</p>
---	---	--	---	---	---	---	---